

# 노동조합 탄압 위한 단체협약 개악안 즉시 철회하라!



케이비아이동국실업(이하 동국실업) 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지난 3월 31일 동국실업 사측은 그간의 관행을 깨고 노측의 요구안에 대한 '2026년 단체협약 갱신 회사 제시안'을 보내왔다.

## 검토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제시안

사측 개악안은 단체협약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조합활동, 고용과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재정구조가 탄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의 대부분을 후퇴시켰다.

또한 4월 8일에는 사내 현수막 철거 요청과 동시에 교섭원칙 역시 새롭게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교섭 시작부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노조파괴 방식이다.

## 노사관계 악화, 왜?

징후는 작년부터 발견됐다. 기존에 합의했던 통상 임금 관련 합의를 사측이 뒤집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연초부터 드러내고 있다. 노사관계 악화의 배경에는 노조파괴 전력을 가진 새로 부임한 노무 담당자가 있다.

## 7일부터 출퇴근 투쟁 돌입

이에 케이비아이동국실업지회는 지난 7일부터 출퇴근 투쟁을 시작했다. 충남지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지역의 힘을 더하고 있다.

동국실업 사측은 괜한 싸움 시작하지 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섭이 진행되는지 충남지부 전체가 지켜보겠다.

